

기온이 뜨거운 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



■ 선풍기, 에어컨에 질식

선풍기나 에어컨을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쬐일 경우 저체온증 또는 산소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다. 이러한 원인으로 2년간 2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.

《사고예방요령》

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놓고 잠을 잘 경우 반드시 타이머로 조절하고, 바람은 회전시켜 놓고 방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.

■ 차내 폭발사고

7월에서 9월 한낮 차량 내 온도가 최고 92℃까지 올라가 차내에 두었던 라이터, 스프레이, 부탄가스를 비롯해 개봉하지 않은 음료수통, 휴대폰 배터리 등이 폭발하는 사고가 지난 3년간 총 12건에 달한다.

《사고예방요령》

차안에는 폭발할 수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, 부탄가스, 스프레이 등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나 발효할 수 있는 음료, 휴대폰 배터리는 보관하지 않는다.



■ 차내 질식사고

더운 날 차안에 잠시 어린아이만 두고 불일을 볼 때 열사병으로 유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지난 2년 사이에 9건이 발생했다. 어린이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잠시라도 밀폐된 차안에 시동을 끄고 두는 경우에는 순식간에 질식하거나 의식을 잃어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.

《사고예방요령》

- 아무리 잠깐 동안 불일을 보더라도 차 안에 절대 어린이를 혼자 두지 않는다.
- 어린이가 고온의 차량에서 장시간 노출돼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옷을 입힌 채로 열을 충분히 발산시켜야 뇌와 조직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. 

